

## EAI 여론분석센터

작 성 자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이 메모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  
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  
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  
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  
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http://www.eai.or.kr)

## 안철수 사퇴 이후 표심 변화

### 안 전 후보 지지층 64.1%, 문 후보에게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전격 사퇴한 이후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이번 패널 조사에서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의 64.1%가 문재인 후보 쪽으로 15.0%가 박근혜 후보 쪽으로 그리고 18.7%가 지지후보 미정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후보 사퇴직후 실시된 각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문재인 후보 쪽으로의 지지이동이 작게는 약5%p(한국경제 글로벌리서치 24일 조사 58.5%) 크게는 약20%p(MBC-한국리서치 24일 조사 45.3%)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결코 작지 않은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 조사방식과 조사시점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시점의 조사에서 과거 시점의 지지후보를 회상하여 물어보는 여타의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동일 응답자에게 시차를 두고 반복질문을 던지는 패널조사가 더 정확하게 시간에 따른 선호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반 여론조사는 응답자가 과거의 선호를 단순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현재의 선호에 일치하도록 과거의 기억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호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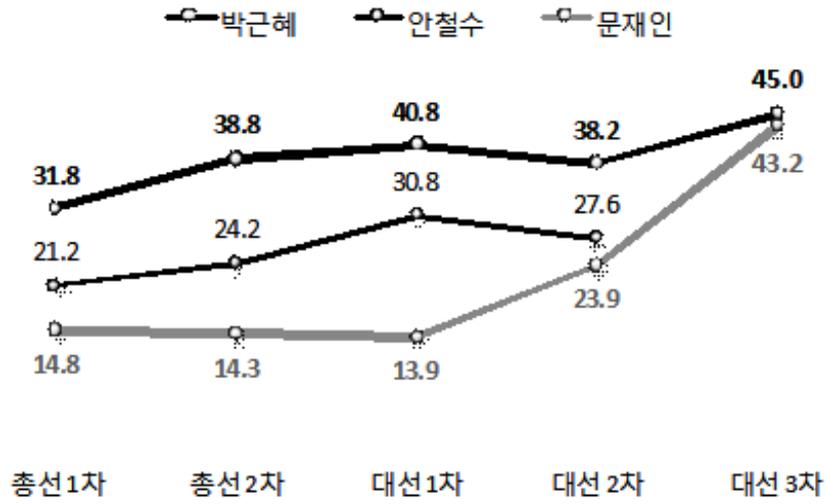
다른 가능성으로 (사퇴직후 조사로

서) 이번 패널조사보다 하루 이틀 정도 조사시점이 빠른 일반 여론조사가 안 전 후보 지지층의 소위 ‘아름다운 단일화’의 실패로 인한 충격을 더 크게 반영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지지후보 상실의 충격을 받아들이고 지지이동의 결정을 합리화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수 있다.

### 그러나, 아름답지 않았던 단일화

그렇다면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은 단일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번 조사에서 볼 때 안 전 후보의 지지층은 지지이동의 경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안 전 후보의 지지층 64.9%가 단일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박 후보 쪽으로 이동한 92.5%가, 지지후보 미정 쪽으로 돌아선 85.5%가 단일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문 후보 쪽으로 이동한 안 전 후보 지지층에서조차 긍정적 평가가 51.7%에 그쳤다. ■

[그림1] 주요 대선후보의 지지율 변동(다자대결, %)



[표1] 4지지 이동 : 10월-11월(%)

			다자대결 (3차 조사)				합계	
			박근혜	문재인	다른후보	없음		
다 자 대 결  ( 2 차 조 사 )	박근혜	%	94.8	2.8	0.0	2.4	100.0	
		명	471	14	0	12	497	
	문재인	%	6.5	89.7	0.0	3.7	100.0	
		명	21	288	0	12	321	
	안철수	%	15.0	64.1	2.2	18.7	100.0	
		명	54	230	8	67	359	
	다른후보	%	25.0	25.0	37.5	12.5	100.0	
		명	2	2	3	1	8	
	없음	%	35.9	25.6	3.4	35.0	100.0	
		명	42	30	4	41	117	
합계			%	45.3	43.3	1.2	10.2	100.0
			명	590	564	15	133	1302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대선패널조사” 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총선 1차 조사	총선 2차 조사	대선 1차 조사	대선 2차 조사	대선 3차 조사	대선 4차 조사	대선 5차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 대선3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11월 25 - 27일 (3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416명
표본추출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5%
패널유지율	70.8% (최초 패널 2,000명 기준)